

투데이 칼럼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

Lead는 말의 의미가 Listen(듣고), Explain(설명해주고), Assist(도와주고), Discuss(상의하는)는 머릿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면 리더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 방향을 향해 전력을 다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최고 리더는 우선 자신이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부하 직원도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따르게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에게는 다음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업무와 관련분야의 실정에 관해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관해 항상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 각자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목표 등을 알아야 한다.

넷째 이를 통해 부하직원과 함께 비전 목표, 전략과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상사와 사장을 리더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천한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정당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을 의미한다. 진정한 리더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제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공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모든 일을 단순화하고 낙관적이다. 긍정적이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업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는 편이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리더는 무엇을 할까? 라는 효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 라는 효율을 쫓는 사람이다.

리더의 권위를 쌓으려면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능력'과 '경영 능력', '인간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0대는 활력(vitality)으로 용감하게 도전하라는 뜻이다.

30대는 전문성(speciality)으로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최소 한 가지 가능하면 여러 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40대는 독창성(originality)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완성하라는 뜻이다.

50대는 인간적 능력(personality)으로 이 능력은 젊을 때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50대에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완성해야 한다. 물론 이 능

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익혀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연령대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 남기주대학교 '워런베니스' 교수는 '리더는 만들어 짓'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 누구나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헌신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공한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능력, 판단력, 신뢰, 투명성, 적응력 등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99%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기개발에 앞장설 때 성공한 리더가 되어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독자재언

불법촬영,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지하철,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심지어 탈의실에도 설치되고 있는 몰래카메라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오히려 점점 더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하고, 초소형으로 변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위장형 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촬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SNS나 인터넷 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영상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을 알고 피해자들은 고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젠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유희적 표현에서 불법촬영 행위라 지칭하는 것만큼 불법촬영은 위험한 행동이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각종 UCC제작 및 전단지 제작 배포하고, 탈의실 및 공공화장실 주변을 불법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대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 불법촬영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보빈 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독자재언

졸음운전은 자살운전이자 살인운전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깜박하는 순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전체사고의 약 31%를 차지하며 치사율은 두 배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은 할증알콜농도 0.17%에 상응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음주운전보다 사고위험이 1.2배 높다고 한다.

졸음운전 사전 징조로는 예컨대 운전 중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하품을 하게 되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를 들어올리기 어려워 차선을 오라가라 하면서 앞차에 바짝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면서 휴게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갓길로 주차하여 놓고 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사 후에는 우리 신체 내에서 소화를 하느라 체내에 많은 산소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차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 졸음을 느끼게 된다.

운전 중 졸리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바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를 필수적으로 매는 습관처럼 졸음운전 피차법 또한 습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졸음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앓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무리한 자동차 운행은 지양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혁신도시 발전 현안, 정부 관심대상으로

전북의 발전 현안을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려야겠다. 저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광역 시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때 그자리에서 도지사는 탄소클러스터를 통한 신소재산업과 스마트농생명 산업을 말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도 말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먹혀들려면 앞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현안들보다 더욱 돋보여야겠다. 그 돋보이는 게 없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 현안이 정부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연장선에서 동일한 말을 재차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미래 구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에도 그해 도민들을 상대로만 발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시일이 상당하지만 후에도 대동소이한 비전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과 관련해 희망을 말했다. 그 희망은 아직은 실속 없는 좋은 날씨가 아니라는 말이다. 전북도는 역대 정부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 현안과 관련해 담당 수준의 종신만 반복적으로 날렸던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이지 종신만

날려가지고는 혁신 도시가 속도감 있게 발전될 터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발전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백프로 믿으면 안된다.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예산 편성 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을 정부의 중요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쪽의 미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에서 노 코멘트하면 그걸로 끝이다. 금융센터 세우고 연기금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좋지만서도 끝이 곧바로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도 혁신도시들이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발전의 성취는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하는데 혁신도시의 발전 건도 그렇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의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연기금대학원 설립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다른 광역시도의 단체장과 브레인보다 한결 차게 뛰어달라는 당부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

전북도가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겠다. 그걸 자력으로 해낼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 방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겠다. 지금까지 면밀하게 플랜을 짜서 도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부이다. 도내에는 여전히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비정규직이 양산됐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힘을 쓰지 못해서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세월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일자리다운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래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 일자리다. 그런데 그 정규직과 고용안정이 매년 식언이 되고 있다. 여태 피부에 와 닿는 실감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본보는 보도된 기사 그대로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50%를 훌쩍 넘었으리라는 짐작이다. 도내 고용 현실이 이러므로 전북도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 달라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이제 정작을 말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자화자찬 하는 식의 발표는 합당치 않다. 며칠 전에 농촌진흥청 비정규 직점인의 실태를 지적했거니와 농촌진흥청이 정말 그럴줄은 몰랐다. 비정규가 태반이었는데 그중에서도 1년짜리가 엄청 많았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도내의 일자리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비정규의 고용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호소를 들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각 시군 지자체들도 함께 보여주어 마땅하다. 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도내 젊은이들의 입장을 제발 헤아려보라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